

인트론바이오 (048530/Not Rated)

김성재 02-768-4103 sungjae.kim@dwsec.com

2012. 10. 9
탐방코멘트

숨겨진 강소(強小) 바이오-테크 기업

- 기술성 평가 특례로 2011년 상장된 기업, 유전자 시약분자진단·동물용 항생제 대체제·신약개발 사업 영위
- 보유 중인 원천 기술 - 1) 박테리오파지 유래 천연항생 물질 lysin 관련 기술 2) PCR 기반 분자진단 기술
-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SAL200 임상 1상 진입, 인체 분자진단 제품 출시 및 해외 진출 모멘텀 대기 중

■ 기술성 평가 특례로 상장된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테크기업

인트론바이오는 기술성 평가 특례를 통해 2011년 상장된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동사의 cash-cow 사업은 유전자 시약, 분자진단,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 부문이다. 인트론바이오의 2012년 반기기준 품목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유전자 시약 76%, 분자진단 14%,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박테리오파지) 10%로 외형상 바이오-인프라 기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사 기업가치의 핵심은 신약개발 부문에 있으며, 주가도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경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신약 개발부문에서는 리신(lysin) 단백질을 활용한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암특이 MRI조명제, 점막백신, 인공혈액이 개발 중에 있다.

■ 바이오 주요 원천기술, 2 track으로 보유

당사가 주목하는 인트론바이오의 바이오 원천기술은 1) 박테리오파지 유래 천연항생물질 lysin 관련 기술(N-Rephasin[®])과 2) PCR(중합효소 연쇄 반응) 기반 분자진단 기술이다. Lysin은 신약개발 동력이며, PCR 분자진단 기술은 인체 대상 분자진단 제품 출시를 통해 사업화가 진행 중이다.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를 감염·사멸시키는 바이러스로써 여기서 유래하는 lysin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천연 항생 물질이다. 인트론바이오는 2002년부터 박테리오파지 R&D를 시작해 현재 410여종 이상의 박테리오파지 및 리신을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유전자 재조합 및 미생물 배양을 통해 lysin을 인위적으로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Lysin 기반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SAL200, NPA200가 있다. SAL200은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치료제로써 회사는 SAL200 국내 임상 1상 종료 후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동사는 SAL200 기술이전 이후 보다 광범위한 슈퍼박테리아를 타겟으로 하는 NPA200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유전자 시약을 취급하는 바이오 기업 다수가 인체 분자진단 제품 출시를 통해 사업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인트론바이오 역시 분자진단 원천기술로써 민감도를 높이는 CLP[®]와 다중진단 기술 MPF[™]을 확보하고 있어 인체 분자진단 사업 진출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동사는 진단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분자진단 제품에 소요되는 핵심 소재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제품 경쟁력이 기대된다.

▶ Earnings & Valuation Metrics

결산기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억원)	EPS (원)	EBITDA (억원)	FCF (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77	8	10.7	6	70	14	14	8.3	0.0	0.0	1.1
12/11	86	3	3.5	3	35	11	-21	3.7	256.8	14.1	81.1
12/12F	100	3	3.0	-1	-13	11	-14	-1.2	-	25.5	113.6

주: K-IFRS 개별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자료: 인트론바이오, KDB대우증권

■ 신약 파이프라인과 분자진단 사업에서 대기 중인 모멘텀

2012년 4분기부터 인트론바이오가 준비한 신약개발 및 신규사업의 모멘텀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선 신약개발 부문에서 SAL200의 국내 임상 1상이 4분기 내에 개시될 예정이다. SAL200은 임상1상 모집 환자수를 일반적인 치료제보다 확대시킬 계획이며 임상 시료(바이넥스 위탁 생산) 품질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 lysin 기반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개발은 동사가 가장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 개발이 순조로울 경우 first-in class가 기대된다.

두 번째 모멘텀은 인체대상 분자진단 사업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인체 분자진단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300억원 규모로 협소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진출에 중점을 두고 씨티씨바이오와 파트너링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 진출은 마케팅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남아 등 개도국 우선 진출이 예상되며,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인체 분자진단 사업이 차기 cash-cow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인트론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적용 질환	개발단계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SAL200 MRSA/VRSA NPA200 광범위 슈퍼박테리아	2012.4Q 국내 임상 1상 진입 전임상
암특이 MRI조영제	암(림프절 전이 포함)	전임상
점막백신		전임상
인공혈액		전임상

자료: 인트론바이오, KDB대우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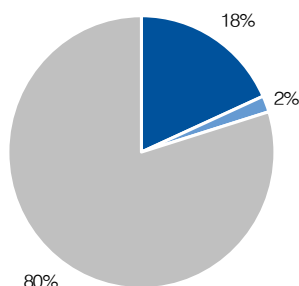
표 2. 항생제 대체제 Lysin의 작용기전 포지셔닝

세포벽 합성 저해 (Cell Wall Synthesis)	핵산 합성 저해 (DNA/RNA Synthesis)	단백질 합성 저해 (Protein Synthesis)	세포벽 파괴 (Cell Wall Disruption)
페니실린 반코마이신 바시트라신 세팔로스포린	퀴놀론 리팜핀	테트라사이클린 스트렙토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클로람페니콜 젠타마이신	Lysin(N-Rephasin®)

자료: 인트론바이오, KDB대우증권

그림 1. 인트론바이오 주식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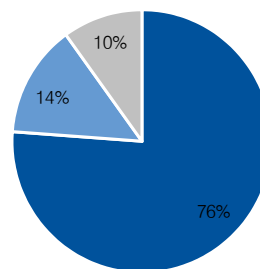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자사주
- 기타



자료: 인트론바이오, KDB대우증권

그림 2. 인트론바이오 매출 비중(2012년 반기 기준)

- 유전자시약
- 분자진단
-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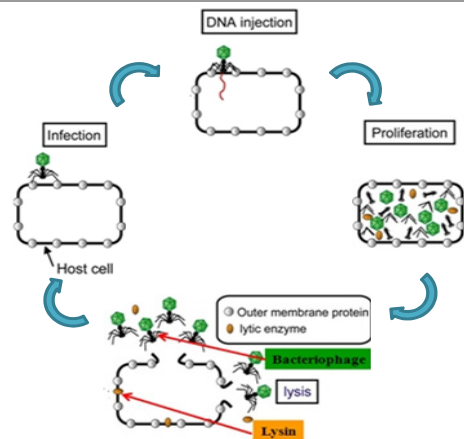
자료: 인트론바이오, KDB대우증권

표 3. 인트론바이오의 인체 분자진단 기술 보유 현황

진단			소재		
민감도 향상	다중 진단	실시간 진단	효소	핵산 추출	제조
CLP [®]	MPF [™]	RealMOD	REV-Rtase (열안정성 역전사효소)	GxN [®] (고순도 핵산 추출)	Maxime [™] (산화 및 수화방지, 건조형 제조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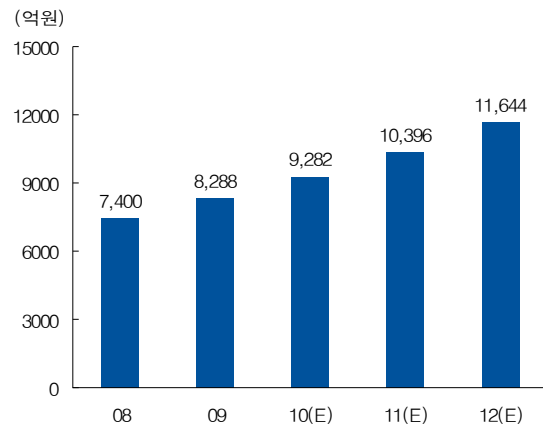
자료: 인트론바이오, KDB대우증권

그림 3. 박테리오파지 및 리신 작용 모식도



자료: 인트론바이오, KDB대우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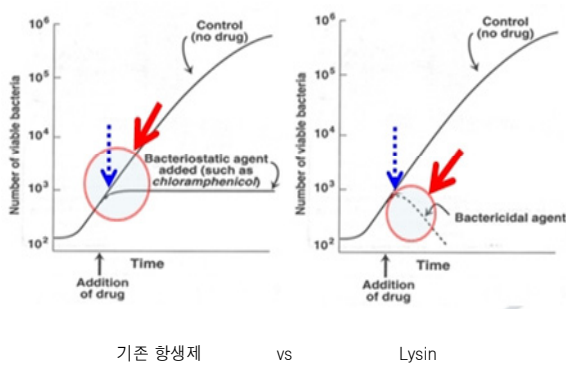
그림 4. MRSA(메티실린 내성균) 항생제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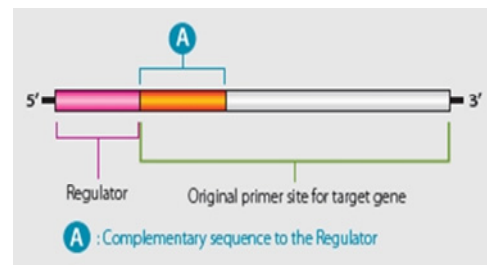
주: 선진 7개국 기준

자료: Pharmaco Report, 2008, KDB대우증권

그림 5. 합성항생제 vs. Lysin 효과 비교



자료: 인트론바이오, KDB대우증권

그림 6. CLP[®]기술 Primer 모식도증폭 과정에서 Regulator를 포함한 서열이
우점되면서 특이도 증가

자료: 인트론바이오, KDB대우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투자정보지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